

박지훈 "내가 KIA 불펜의 핵"



신인왕 탈락 아쉬움 접고 맹훈련
"체력 회복해 직구 위력 살려야죠"

KIA의 '필승부른 떡잎' 박지훈이 데뷔 첫 해의 아쉬움을 극복하며 2013년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2012 시즌 개막을 앞두고 타이거즈 유일의 신인왕 이순철 수석코치는 신인왕 후보로 박지훈을 지목했다.
박지훈은 "당연한 결과다. 마무리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며 "체력이 떨어지며 후반에 성적을 내지 못했다. 신인왕에 큰 뜻을 두고 있지는 않았지만 후반에 다른 선수들보다 밀린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다"고 밝혔다.
'체력'이 가장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라 오키나와 캠프에서 체력훈련에 가장 주력하고 있다.
박지훈은 "체력이 가장 문제였다. 체력

이 떨어지면 내 공을 던지지 못했다. 의지와 다르게 공이 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캠프에서도 체력훈련에 많이 신경쓰고 있다"며 "또 올 시즌 전반기에는 여러가지로 잘 풀려 야구가 쉽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다보니 스윙 궤도 등 좋지 못한 것을 고치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다"고 자평했다.
아쉬움 속에서도 경험이라는 귀한 자산을 얻은 것은 올 시즌의 성과다.
박지훈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더 배워야 하지만 1군에서 계속 생활하며 자신감과 경험을 얻은 것은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한다. 초반에는 많이 긴장했지만 차츰 마운드 운용의 여유도 생겼다"고 언급했다.
시행착오 속에 배운 경험을 통해 내년 시즌 불펜의 핵심으로 자리하는 게 박지훈의 목표. 체력 보강과 함께 부족했던 기술을 채워가고 있는 중이다.
박지훈은 "팔 스윙을 일정하게 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역시 체력이 관건이다. 체력이 떨어지면 팔 스윙이 멋대로였다"며 "전반기를 마친 후 감독님께서 '직구 위주의 피칭'을 주문하셨다. 직구 위력이 살아야 변화구에도 위력이 생긴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셨다. 체력을 더 보완하고 직구의 위력을 살려 중간의 핵이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체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한 KIA 투수 박지훈이 오키나와 캠프에 마련된 웨이트장에서 체력훈련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FA 협상 테이블 내일 1차 마감

KIA, 정현욱·김주찬 '눈독'

"김원섭·유동훈 재계약"
이현근 거취는 유동적

프로야구 자유계약(FA) 선수들의 D-데이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10일 차려진 FA 협상 테이블이 16일 1차 마감된다. 원소속구단과의 우선 협상 기간 동안 계약을 마무리 하지 못한 선수들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타구단과의 협상을 벌인다.
KIA에서는 내야수 이현근, 외야수 김원섭, 투수 유동훈 등 3명이 FA 자격을 얻어 모두 권리 행사에 나섰다.
이중 김원섭과 유동훈은 구단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면서 내년 시즌에도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활약할 전망이다.
시즌이 끝난 후 FA 선언을 공식화하면서 마무리 캠프 명단에서 제외됐던 김원섭과 유동훈은 일제감치 의견 조율을 끝내면서 계약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현근의 거취는 유동적이다. 잔류군으로 남게 마무리 캠프에 참가했던 이현근은 장고 끝에 FA를 선언하고 캠프에서 철수한 상태다. 이현근은 종이리 부상으로 시즌 출발부터 삐걱거리며, 올 시즌 1군 6경기에 나오는데 그쳤다. 부상과 부진 속에 주전자에서 밀려난 이현근은 '기회'를 우선으로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



삼성 정현욱 롯데 김주찬

16일이 지나면 물밑에서 전개되던 각 팀의 눈치 작전도 본격화 된다.
LG 이진영과 정성훈이 가장 먼저 계약 사실을 알린 가운데 KIA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팀은 삼성과 롯데다.
허약한 불펜으로 힘든 시즌을 보냈던 KIA 입장에서는 배태랑 투수 정현욱(삼성)은 탐나는 자원. 리드오프 김주찬(롯데)도 주목하고 있는 선수다.
타팀의 이목을 끌고 있는 삼성·롯데 모두 '무조건 잡는다'를 원칙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는 김시진 감독의 취임식이 열렸던 14일 오후 김주찬과의 자리를 가졌다. 포스트 시즌 일정으로 분주했던 삼성도 D-데이를 앞두고 협상에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FA 눈치싸움 결과에 프로야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양키스·보스턴 가도 활약 자신"

류현진과 나란히 미국으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추신수(30·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의 연봉 협상을 앞둔 '괴물투수' 류현진(25·한화 이글스)이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다.
추신수는 1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해 본격적인 내년 시즌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해 유주운전 파문과 부상으로 힘든 시즌을 보낸 추신수는 올 시즌 155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3(598타수 169안타), 홈런 16개, 타점 67개, 도루 21개를 기록하며 재기에 성공했다.
추신수는 내년 시즌을 마치고 대박 계약이 가능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추신수의 몸값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되는 클리블랜드는 최근 추신수와 계약 연장에 실패했고, 스토브리그에서 그를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벌써 보스턴 레드삭스 이적설이 흘러나오는 등 추신수는 스토브리그의 관심 선수로 떠오르고 있다.
추신수는 출국 전 "딱히 원하는 팀은 없고, 아직 정해진 것도 없다"며 "다음 시즌 목표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몸 관리를 잘하고 되도록 많은 경기를 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스턴이나 뉴욕 양키스 등으로 트레이드 설에 대해서 "명문 구단에 가게 된다면 좀더 나은 에너지로 좀더 이기는 야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잘할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식 인터뷰 없이 출국장을 빠져나간 류현진은 LA에서 에이전트인 스포츠 보라스와 함께 다저스를 상대로 본격적인 협상 준비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14일 류현진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류현진은 에이전트 스포츠 보라스를 만나고 2~3일 정도 미국에 머무를 계획이다. /연합뉴스

올 시즌을 마치고 메이저리그의 문을 두드린 류현진은 포스팅 사상 역대 4번째로 높은 응찰액인 2573만737달러33센트(약 280억원)를 받아내 기대감을 높였다.
응찰액은 다저스에서 한화에 주는 이적료 형식의 돈으로, 류현진이 받아야 할 연봉은 협상을 통해 다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협상의 결과는 마감 시한인 내달 12일이면 알 수 있다. /연합뉴스

WBC 일본 대표팀 감독 "숙적 한국을 경계해야"

이승엽에 가장 주목

제3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일본 대표팀을 이끌 야마모토 고지(66) 감독이 '한국 경계령'을 발령했다.
일본의 스포츠전문지 '닛칸스포츠'는 "한국의 WBC 예비 명단을 본 야마모토 감독이 '숙적' 한국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14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2일 발표한

WBC 예비 명단에는 이승엽(삼성)·이대호(오릭스 버펄로스)·김태균(한화) 등 일본 투수를 상대한 경험이 있는 '거포'들이 포함됐다.
야마모토 감독은 한국에 출전 타자가 많다는 점을 의식하면서 이 중 이승엽에게 가장 주목했다. 이승엽이 야마모토 감독에게 빼어난 기억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야마모토 감독은 호시노 센이치 감독(현 라쿠텐 골든 이글스 감독) 밑에서 2008년 베이징올림

픽 일본 대표팀의 수비·주루 코치를 맡았다. 당시 이승엽은 일본과의 준결승전에서 다섯 번째 투수 이와세 히토코로부터 역전 투런 홈런을 뽑아 일본에 뼈아픈 패배를 안겼다.
그러나 야마모토 감독은 "몸쪽 높은 볼이 그의 약점"이라고 말해 이번만큼은 이승엽을 공략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우리 선수를 질한 이상이 처음으로 대표팀에 뽑혔다"며 "신선한 멤버로 라이벌인 한국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국 학교 클럽 핸드볼대회

63개 팀 1000여명 참가

2012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핸드볼대회가 17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안산의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학교 스포츠와 학생들의 자율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다. 전국 63개 초·중·고 클럽팀, 1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시·도교육청 예선을 통과한 각 지역 1위 팀들이 챔피언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투를 벌인다. /연합뉴스

생활체육 트레킹 대회 18일 각화중학교서 열린다

무등산 가을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제2회 광주시장배 생활체육 트레킹 대회가 18일 각화중학교에서 열린다.
광주시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광주트레킹연합회 주관, 광주시 후원으로 열리는 대회는 친환경생활체육 트레킹의 저변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오전 9시 각화중학교를 시작으로 무등1길

과 2길을 걷는 대회는 순위에 상관없이 진행되며 참가자에게는 기념품도 증정된다.
광주트레킹연합회 조종서 회장은 "가족·지인과 함께 무등산 경치도 즐기며 건강도 챙기고 추억까지 만들 수 있는 일석삼조의 행사"라고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참여에 관한 내용은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062-717-7363)로 문의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